

## IX. 온양의 무과설장(武科設場)

### 1.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온양군은 충청좌도(충남지역)의 도회(큰 도시)로서 3식(9년)마다 1차식의 과거를 온양에서 베풀었다.

식년(式年)이라 함은 간지(干支)에서 자(子), 묘(卯), 오(午), 유(酉)에 해당하는 해를 말함인데 3년마다 1식년이 돌아오게 되며 이 해에 실시되는 정기적인 과거 시험을 식년시(式年試)라고 했다.

병오년(丙午年: 정조 10년 1786년)의 식년 무과는 1년 앞당겨 을사년(乙巳年: 1785년) 8월에 온양에서 실시했고 을묘년(乙卯年: 정조 19년, 1795년) 식년 무과도 1년 앞당겨 갑인년(甲寅年: 1794년) 9월에 실시했다.

이와 같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던 식년 과거(式年科擧)의 무과는 온양에서 1차식을 실시하면 그 다음의 2차례(2차식·3차식)는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9년만에 또 다시 온양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또는 특히 인재를 등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비정기적인 과거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을 증광시(增廣試), 알성시(謁聖試: 임금이 성균관의 공자 사당에 참배한 후에 실시함), 경과(慶科: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에 시행함), 그밖에 특별히 시행하는 별시(別試)가 있었다.

온양 온천에는 조선 왕조 시대에 왕과 왕비의 행차가 자주 있었고 그 때에는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를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이 과거를 온행(溫行) 증광별시(增廣別試)라고 했다. 기록(온주지: 溫州誌)에 의하면 현종 6년 을사(1665년)에 문과 7인, 무과 200여인을 선발했고 현종 7년 병오(1666년)에는 문과 5인, 무과 90인을 선발했다.

그리고 숙종 43년 정유(1717년)에는 문과 7인, 무과 200여인을 선발했고, 영조 26년 경오(1750년)에도 문과 7인, 무과 200여인을 선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왕조 제 23대 순조 대왕은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12세에 김조순의 따님(안동 김씨)과 혼인하였는데, 13세 때에 천연두(두창; 손님마마)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되어 왕과 왕비가 함께 이 중병에 전염되었다. 다행스럽게 건강을 회복하시어서 나라의 크나큰 경사이므로 온양에서 경과(慶科) 증광별시(增廣別試)를 베풀었다. 이 때가 순조 3년 계해(癸亥: 1803년) 2월 (양력 3월)이었는데 무과(武科)시험으로 충청좌도(충북지역)에서 12명, 충청우도(충남지역)에서 13명의 급제자를 선발했다. 이때에 시험은 5일간 계속되었다.